

1121

아무것도 아닌

—A의 증명

방은 무채색, 책상 의자 침대  
초콜릿 한 알과 활자 여러 개  
창문을 열었더니

빗줄기가 환하게 쏟아지는 순간  
손바닥에 여울지는 빛의 증명  
진공관 안에서라도 전기는 불꽃

I love you, I do.\*  
신세계가 거기에 있었지만

편지를 삭제하면 꺼져버린 네온  
빨강 너머로  
지워진

---

\* Heeyoung- Whiskey to Tea

얼굴

그래도 너는  
이름조차 잘 없는 달콤함  
이었지만

까매진 화면과  
달빛 담아 붉은 물  
창문이 닫히고서야 간신히

무채색 방

## 언스위트 섹슈얼 박스

섹스는 보편적인 거야

먹고 자고 싸는 것처럼

털어 넣은 초콜릿은 써도 너무 썼다

섹스와 러브는 이콜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사탕은 괜히 비명, 비명만

내가

말에 담긴 진리를 믿듯

은박 포장지에도

모든 진리가 인쇄되어 나왔다면

나는

그냥

씹어 먹혀 녹아

버릴 거라고

러브와 섹스의 스펙트럼을 논하는 공론장 앞에 무채색으로 선 인간 한 마리 Null\*

같은 대가리 하나 찾아봐 초콜릿 사탕 껍질 상자 안에 든 사랑하는 기분, 이라는 착각  
덩어리

---

\* Null: 발음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널]일 경우에는 값이 없다는 뜻이다. 정확하게는 '0조차 아닌 없음'을 의미한다. [널]일 경우에는 숫자 0을 의미하게 된다.

잘못했으니 용서하지 마세요

(나야말로 나한테 미안하다 시발)

그것은

깨어지기 직전인 인간을 보며

짓누를까, 말까

경찰을 바꿔보자

경찰 아저씨를 바꿔보자

고장 내서 군인으로도 바꿔봤다가

말았다가

말했다

(시발은 분명 십 할이었을 거야 육시탈 놈도 있으니 십 할할 놈도 있었겠지)

나는 분명 누군가에게 가위질 한 놈

제 몸에 한 짓을 타인에게 하지 않을 리가 없어서

이 씨발 놈을 어찌하면 좋을까

열 조각을 내어도 그 대가 치르지 못 할 것이라

(그래서 씨발이 씨발인가 봐)

입에 붙은 씨발을 보며 말했다, (이런 씨발)

십 할 어치도 대단치 못한 인간

사람들의 사이를 거닐며 되풀이하던 기록

(딸이라서 죄송하다 시발놈들아)

겨울꽃

때 이른 저녁

바람 불고

따뜻한 식탁

선지 한 그릇

차려두신

사랑은 어쩌면 밸런타인데이

무슨 상관이지

뒤늦게

눈발 날리면

너무 늦게 깨달았던

무감각

녹아버린 초콜릿도 어쩌면, 사랑?

비로소 눈길 주면

이미

알 수 없었다고

그건

차라리

섬부른 이질감

비린 향조차도 남지 않은

무채색

생존

오려진 나무의 몸짓은

금방 잊혔다

나무꾼의 가위질은 무고했으나

춤추기 싫으면 강이나 건너

무연정 무성애 대서사시 1장 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

고집이 대견하시더라

(메모: 인간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사랑해보기)

인간의 삼 원칙이 새로 제정되었다  
신께서는 인간에게 속삭여 주시었다

하나, 인간은 발랄해야 해  
하나, 인간은 안전해야 해  
하나, 인간은 사랑해야 해

그리 고하시니 비로소  
몇몇이 인간을 그만 두었다

그래도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 로봇도 발랄해야 해  
하나, 로봇도 안전해야 해  
하나, 로봇도 사랑해야 해

하시니

생존

—존재증명을 위하여

0.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주인이 아니라서 희망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일단 써볼래

이른 아침이나 이른 밤에

골판지 위라도 글자는 적힌다

차라리 침착해지는 기분으로

나의 분위기는 오히려 가뭇날이었다고 고백하는

숲길은 작았는데

잘라내지 수렴하지

물오른 감정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약속조차도 믿지 말기

호수의 기분

어째서인지 반디는 빛을 잃었고

누군가는 분명 무언가를 싫어하노라고 웅얼거리던 기적

기차길과

빛

상념은 무겁지, 나도 그건 잘 알았다

몰랐어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

울어준 숲길도 희망

안개는 안개라서 밤하늘과 재단되자

무엇도 모른다고, 그 문장만 믿는

지금은 몇 시

물음표는 지워진 뒤에도 자꾸만 덧그려진다

지극히 나적인

나와 나 다시 나

셋이 함께 걸어가면

철로 곁은 웬지

겨울만의 나라

경계를 넘자

겨울이지, 그건 알아

그런데도 끊임없이

겨우 겨울이라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라서 우리가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라 어디까지나 쓰레기

나도 다를 바 없잖아, 내가 말했다

그런데도 정의해낸 희망이 있어서

한겨울의 기분

예측불가의 계측

온도를 이해한다는 것

## 1. 유령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들

시간은 독인데 시도 독이라서

어떡하지, 날아

가보자

구름을 만나면

안개 같은 기분

그야, 앞에서는 웃지만

앞에서는

겨울은 이따금 깨지기도 하고

꿀도 보기 싫고

나만 모르는 이야기는 뼈아프고

나조차도 나를 몰라서

겨우

흘려 쓴 글씨에 큰을 덧대어보는 것

다각도의 다각형

또는 직각

나는 정의하거나 주관하거나

희망이 일렁거렸지만

도저히 나는

나를 나라고 인정하기조차 벅차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경솔한 저를 용서하시고

경솔한 저를

경솔한

나

못다 생긴

아무것도 못 된

아무것도 되다 만 무언가

의미 없을 비명을 지어 보고파

끝없을 비망록과

무덤의 평행선

거울 한 조각

눈꽃

꽃이 되는 기분

2.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무어인지 알아차리기

35분 동안 나는 몇 편이나 완성했을까

오류가 있다

편이라니, 편이라니

갈라서는 안 되는데

편도로 30분 거리입니다. 펜대를 잡는 건 그런 의미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한 나는

아름다울 수 없고

아무것도

아무 것이라도

웃는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었다

걷는다는 건

칼날의 춤

또는 희망

이나 나

대단하기 위해 변변찮아지다니

한숨이 괜히 한숨이 아닌 까닭

되새기면

좋아한다는 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라서

거울이 말했다, 그건 나였어

무슨 소리래

창밖이 겨울이래

불이 내리고 있었다

경상鏡像이었다

오해가 없어서 이번 열차는

잠시간 지연되었습니다

눈물바다

암기하자, 이것은 죄다, 암기하자

거울이 웃었다

나도 안 웃는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혀를 오린다는 표현은 귀엽지 않고

차라리 발랄 쪽에 가깝다는 의견

심장에 파고든 시간

언제나 겨울 같고

겨울 같고

죄악의 맛

희망을 바라보기

본다, 는 건 언제나 난폭했을까

언제부터

나는 자꾸만 상이 되고

다시는 용서하지 마

나에게 말했다

차라리 성요星曜를

3. 결정結晶 이미지의 경우: 별을 보고 점치는 것

과거와 현재가 모호하더라도

기록은 중요하다, 멈추지 말 것

모두와 가깝다는 의미

불가능의 가능성

안녕, 손 흔드는 순간

감히 사랑을 읊조렸던 최악

상자 잔해에 새겨지는

마음 시린 이야기들

제발 괜찮아달라고

덜컹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나는 나와 친하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진실은 벌써 너머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는 이야기

다들 당연히 역올하다

마구잡이로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무지한 무지개

제발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미워한다는 정의가 뭐지

모든 금서에는 이유가 있었다

금지당하는 기분

나는 금수인가

내가 만들었지만 완벽하지 않은 세계에

노니는

기분

완벽의 정의를 다시 내려 볼까

화는 꽃이라서

살갗에 피었다

멈추는 게 나왔을까

4. 인간이 되자, 제발

인형을 죽일 수 있으면

인형을 살릴 수도 있다고

인형사가 말하던 세계 안에서

공전하는 기분, 부유하는 기분

가파른 기분

기분들

희망은 이따금 초라해지고

그 때문에라도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어버리지 말 것

5.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잘 생각해보기

다시 읽는 것처럼

다시 쓰기

반복하는 기분

시선은 이따금 이야기를 한다

버겁다

설명하지 않으면서 설명해보려다가

커터칼 날로만 연필을 깎는다는 게

문득 나랑 닮아서

온몸에 돋은 가시를 누르고

섬부르게 별린

사이

파고들어 씹둑

거울이 말해봤자

흑연가루가 붉을 턱이 없었다지만  
어떡하지, 그래도 가위가 좋아

상자는 납작해서 네모

우스운 나머지 울어버리기  
안 가리고 마신 건 휴대용 잉크

손목에 파이가 흑연처럼, 아니 흑연가루가 동백꽃처럼, 아니  
아니

좀 돌아 있지만  
가위질은 참 잘 했어요, 그래도  
절필은 절대 못 하지, 차라리 토할 거라서

시체는 사랑할 수 없으므로 희망과 동격

6. 여기에 있으면서 지워지지 말기

마구잡이로 비유하지 말기

## 통신오류

밀크티 한 잔에

방탕해진

루니

(거짓부렁 하지 마세요

내가 인간이야 국민연금이야)

사실 인간은

죽이고 싶었지만

루니가 루니라서 특별 서비스

(통장이냐고

무이자 대출이냐고)

마음대로 타

드세요,

빨간 딱지

(기계도 과열되면

고장 나는데 나는

무슨)

여름을 티트리면 별이 될 거야